



사진제공 · 우영화

목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민 1세대 중심의 이민교회가 낯선 땅에 유리되어 방황하고 상처 입은 한인들의 영혼을 보듬는 사역에 집중했다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진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어야 할 터. 이에 4B 목회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동부사랑의교회의 이야기를 듣는다.



동부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민사회에서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고 이민 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민 교회의 역할은 이민자들의 삶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사한 면이 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도시와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과 교육,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에게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 동부사랑의교회는 1세대 이민자들과 다음세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동부사랑의교회의 역사

동부사랑의교회는 2007년 4월 8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파송된 33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시작된 교회다. 개척 후 3년이 지나 LA 동부 치노 지역의 Mosaic Church의 지교회를 매입하였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2019년 4월, 2대 담임으로 필자가 부임하여 '4B'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민사회와 LA 지역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목회 비전과 철학

필자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며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개척교회를 경험했다. 유학생 시절에는 이민교회를 섬겼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규모가 큰 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런 목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목회적인 방향과 철학을 세울 수 있었다. 네 개의 각각의 비전 문구의 맨 앞 글자를 모아 '4B'로 그 내용을 요약했다.

1_ Believe in Jesus

필자의 첫 번째 목회적 비전은 교회의 문턱을 밟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필자 안에 있던 문제의식 중 하나는 교회 내 적지 않은 이들이 그저 종교적 활동, 사회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들이 많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사후에 천국 가는 열쇠를 얻는 것이 아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인생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인간은 빛을 만들어 내는 발광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으로 다시 비추는 반사체는 될 수 있다. 인간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필자는 설교마다 복음 중심적 설교(Gospel Centered Preaching)를 하려고 노력한다. 더불어 등록된 새가족들을 위한 클래스를 담임목사인 필자가 직접 인도하며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나누고 있다. 더불어 예배의 다양화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기존에 세 번의 예배를 동일한 방식과 방향으로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의식(Ritual)을 중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와 열린 예배로 차별화해서 드리고 있다.

오늘 이 시대의 다양한 영성을 담기 위해서 예배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



사진제공 : 우영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_ Become a follower

두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제자 훈련을 핵심 사역으로 두고 있다. 평신도 리더가 인도하는 16주 일대일 양육과정을 마치면 부목사들이 1년 동안 제자반을 인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목사인 필자가 1년 동안 사역 훈련을 진행한다.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하는데, 훈련의 주목적은 자기 부인이다. 인간의 열심, 영광,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3_ Build God's kingdom

세 번째 비전은 훈련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했다(엡 2:10).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회복되는

일에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이웃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멕시코의 한 고아원을 매달 찾아가 그곳의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가 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지만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다. 또한 매년 여름이 되면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축구교실의 마지막 순서는 모든 아이와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시상 및 축하를 하는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개교회주의를 넘어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4_ Belong to family

네 번째 비전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삼위의 연합의 DNA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 연합되어 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회복되는 일에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멕시코의 한 고아원을 매달 찾아가 그곳의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가 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지만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다.

우영화 목사 | 월간목회 2023년 4월호

고 유기적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하면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는 '몰라쿨 라이프'(Molecule Life)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취미,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개설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점 사역

1_ 교회 개척 사역

코로나19가 한창인 2년 전에 한 성도가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왔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은 후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부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곳, 선교지, 이웃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네 곳의 교회를 섬기며 돕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의 마네아데로에 건축선교팀을 두 차

레 파송하여 미완공 상태로 남아 있던 선교센터를 완공하고 돌아왔다.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에 개척된 교회에는 무료 급식소 사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급식소를 통해 약 1백 명의 아이들이 주 5회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도들이 직접 그곳에 방문해 요리하여 식사를 섬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두 곳의 교회 개척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멕시코 캄포 지역 선교사의 요청으로 그곳에 있는 한 건물을 주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그곳에서 주일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게레로 지역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현지인 교회를 위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다. 지난해 교회 건축부지에 답사를 다녀왔고, 올해 교회를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다.

2_ 다음세대 교육

아카데미와 더불어 기독교 사립학교를 준비 중이다. 미국의 공교육에는 반성경적 가르침이 많다. 이민 교회는 인격과 영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세워야 할 과제가 있다. 프리스쿨과 아카데미로 시작해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